

## 국내 밀 품종 및 우량계통의 춘파시기별 숙기관련 특성

최창현<sup>1\*</sup>, 강천식<sup>1</sup>, 손재한<sup>1</sup>, 윤영미<sup>2</sup>, 김양길<sup>2</sup>, 박종호<sup>2</sup>, 박태일<sup>2</sup>, 김정훈<sup>1</sup>, 김경민<sup>1</sup>, 정한용<sup>1</sup>, 박진희<sup>1</sup>, 김영진<sup>1</sup>

<sup>1</sup>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

<sup>2</sup>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 [서론]

국내 밀 품종은 주로 벼 수확이 끝난 가을철에 파종하여 이듬해 6월경에 수확하고, 주로 논에서 벼와 함께 재배가 이루어진다. 즉, 밀 수확이 끝나면 바로 벼 재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2모작 농가에서는 숙기와 파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근 가을철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파종을 하지 못하는 농가는 봄에 씨를 뿌리는 춘파재배를 하게 되는데, 적합한 품종을 적기에 파종하지 않으면 수확이 힘들어지게 된다. 이에 국내 밀 품종의 파성 특성을 알아보고 춘파한계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재료 및 방법]

국내 밀 품종의 파성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밀 40품종을 대상으로 파종하였다. 숙기관련 특성 분석을 위해 대조구로 10월 24일에 추파를 실시하였고, 춘파재배는 이듬해 2월 21일, 3월 23일과 4월 20일에 각각 파종하였다. 숙기관련 특성은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전주)에서 실시하였으며 출수기와 성숙기를 조사하였다.

### [결과 및 고찰]

10월 24일 파종하였을 때는 모든 품종과 지적계통이 출수와 성숙이 이루어졌으며, 출수기는 평균 4월 23일(최소 4월 18일~5월 3일), 성숙기는 평균 6월 2일(최소 5월 26일~6월 11일)이었다. 춘파인 2월 21일 파종하였을 때는 모든 품종과 지적계통이 출수와 성숙이 이루어졌으며, 출수기는 평균 5월 13일(최소 5월 1일~5월 28일), 성숙기는 평균 6월 14일(최소 6월 9일~6월 28일)로 10월 24일 파종기에 비해 20일 늦게 나타났다. 춘파인 3월 23일 파종하였을 때는 그루밀은 출수와 성숙이 되지 않았으며, 신미찰1호는 출수는 되었으나 성숙은 되지 않았다. 그 외 품종과 지적계통은 출수와 성숙이 이루어졌으며, 출수기는 평균 6월 4일(최소 5월 19일~6월 26일), 성숙기는 평균 6월 28일(최소 6월 2일~7월 8일)로 10월 24일 파종기에 비해 42일 늦게 나타났다. 춘파인 4월 20일 파종하였을 때는 새울, 밀성과 조경, 조아, 조중, 백강, 태중, 전주396호, 전주397호와 전주398호는 출수와 성숙이 이루어졌다. 청계, 우리, 서둔, 진품, 조품은 출수는 되었으나 성숙은 되지 않았다. 그 외 품종과 지적계통은 출수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그루와 신미찰1호는 춘파에 적합하지 않으며, 새울, 밀성, 조경, 조아, 조중, 백강 등은 4월 20일 이내 파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2464022018)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63-238-5454, E-mail. chchhy@korea.kr